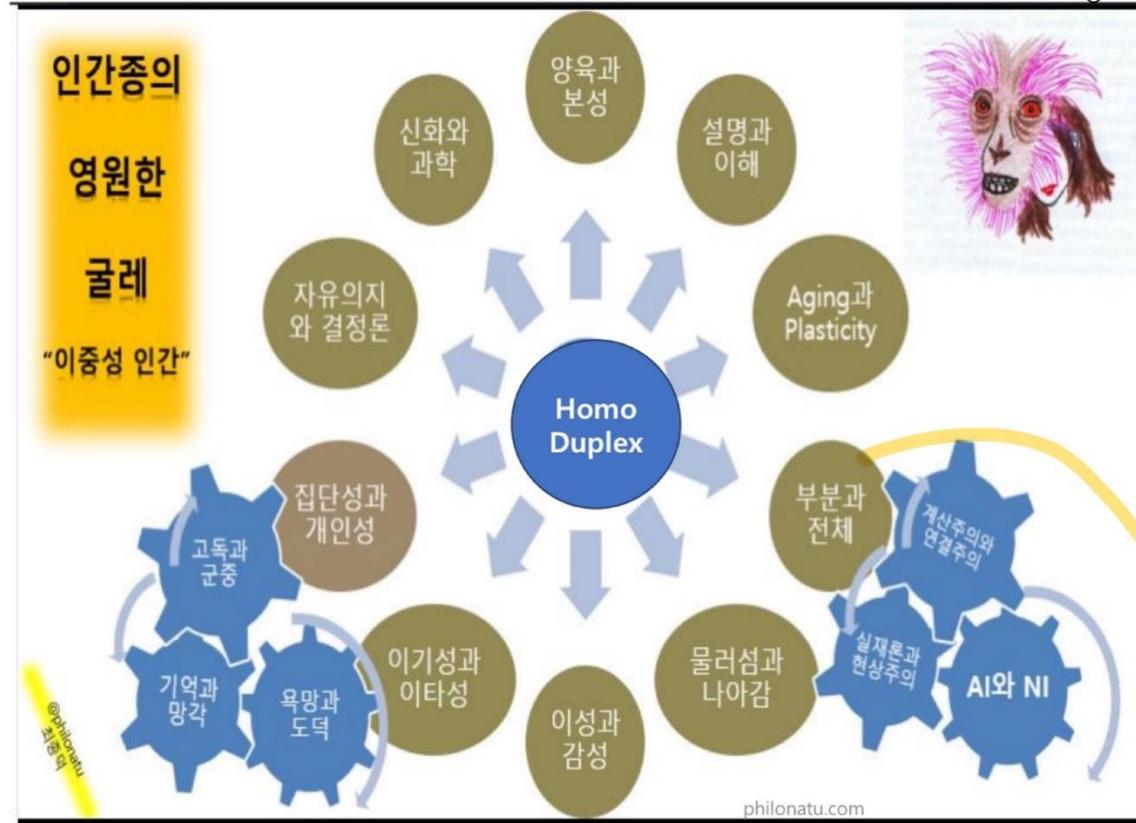


한철연 아카데미 2025

객체와 운동 1강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이분법의 갈등의 총동, 그리고 융합성

con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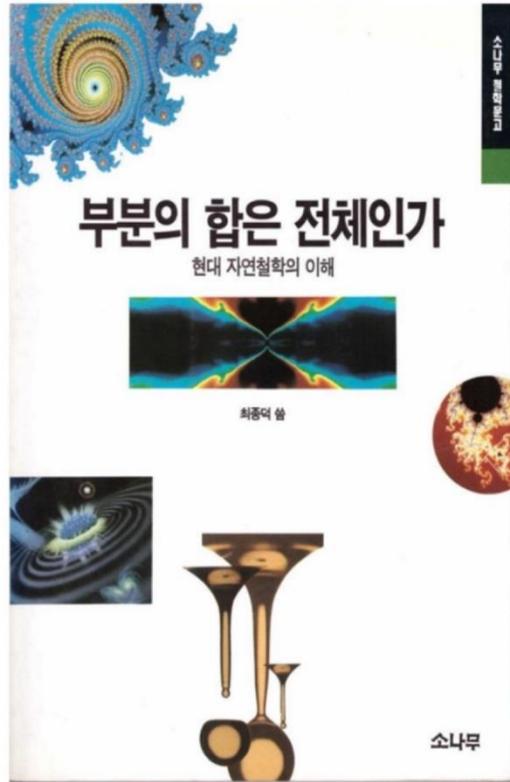
- 과학의 인문학
- 서양의 동양
- 물리학의 생물학
- 고전과 현대
- 주체와 객체
- 정신의 신체
- 위반의 전제

최종덕 (philonatu.com)

2025년 7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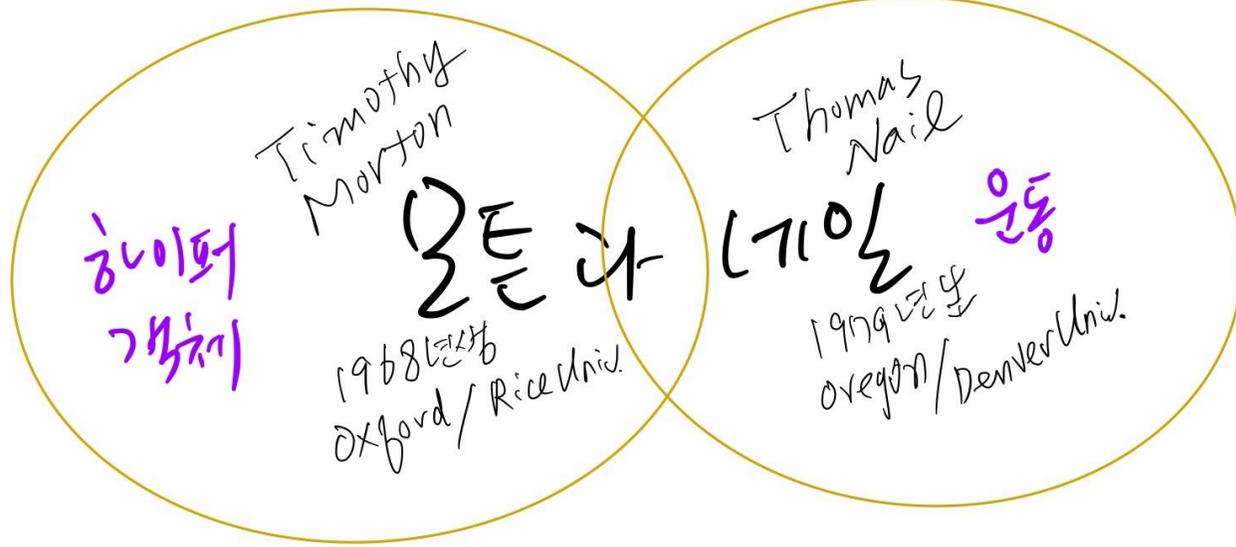
#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 환원주의 부정
- 전체 개념 비판
  - 전체주의
  - 유기체주의
- extensive 대신 intensive (양성)
- intensive 대신 extensive (양성)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적권, 유입신*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시스템은*
-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누적*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모든 하이퍼개체*

신유물론  
개체지리학개체론



간트, 하이데거, 하이트헤드, 드리즈, 마드

티머시 모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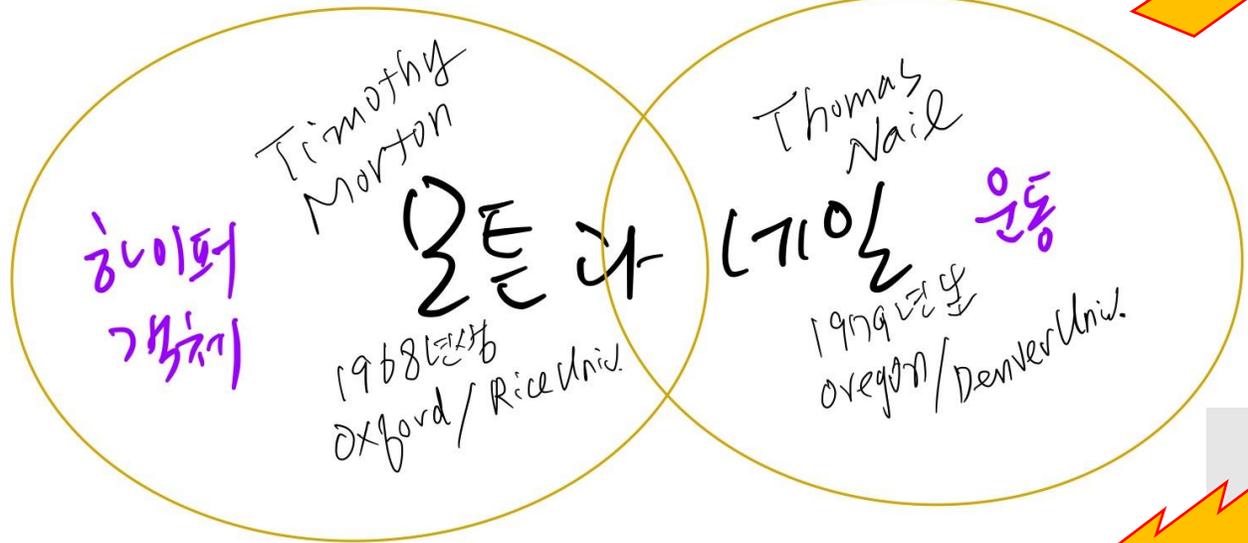
하이퍼객체, 저주체의 생태학  
권위와 규모에 길들여지지 않고 놀기

모든,  
자연은 없다





신유물론  
개체지향적 생물학



간트, 하이데거, 하이트헤드, 들뢰즈, 랑그르

티머시 모튼

하이퍼객체, 저주체의 생태학

권위와 규모에

길들여지지 않고 놀기

물질의 스펙트럼

욕망의 물질	물신주의 유물론	fetish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사회의 물신주의를 일컫는 메타포로서 통속 물질론</li> </ul>
토대의 물질	존재론적 유물론	데모크리토스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화적 세계해석에서 벗어난 자연주의 세계관</li> </ul>
	과학주의 유물론	형이상학적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심론과 대비되는 존재론의 태도</li> </ul>
	과학주의 유물론	기계론적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적 의미의 기계론적 유물론</li> <li>• 과학방법론에서 환원주의의 기초</li> </ul>
토대/관계의 물질	동력학 유물론	변증법 유물론/역사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 토대론과 변증 관계론의 세계해석</li> <li>•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역사변동론</li> <li>• 물질과 삶의 일탈declination</li> <li>• 생명의 우연성, 그러나 무작위가 아닌 숨겨진 인과로서 복잡계</li> </ul>
관계의 물질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	
관계의 물질		생태학적 유물론 (레빈스와 르윈턴)	
관계의 물질	신유물론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고스, 초월성, 인간중심주의 탈피</li> <li>• 부업토로서 인간/비인간 공생의 하이브리드</li> <li>•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의 이분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거나 원래 그 사이의 경계가 없었던 얽힘의 관계</li> <li>• 배제가 아닌 포용inclusion하는 비인간 수행성 혹은 ANT</li> <li>• 물질의 능동성(그러나 생기론을 경계함)</li> </ul>
		생기론적 유물론	
		자연-문화 유물론 (de Waal, 해러웨이)	
		행위실재론	
발생의 물질	체화주의	운동 유물론(네일 <sup>T.Nail</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안경과 현미경은 내 눈의 연장extended</li> <li>• 인지는 몸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li> <li>• 인지활동은 바디를 통해embodied 의미획득</li> <li>• 주체가 행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화를 통해서 나와 세계가 자기조직된다.</li> </ul>
		확장 인지론, 발생유물론	
		행화주의	
발생의 물질	체화주의	생멸변화의 불교유물론(바렐라)	

© philonatu.com

\* 참조 - 표 안의 분류와 구별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



시야로 인간

인간중심주의 탈피 - 행복위자라서 비인간

모든의 동등성

관계주의 다중관주의에서 벗어남

진재 - 인식론의 변이론

탈이분법

다중문 프로젝트  
자연과학, 공인과학, 자치학  
문화, 예술, 생명학, 의학  
지리학, 과학 기술학

여기서 비인간이란?

1. 인간 혹은 어느 한 인간으로서 동일성은 없다. - 반실체론 관점
2. 인간도 비인간의 한 부분일 뿐이다.
3. 인간중심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4. 의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 생기론 관점

# 참조: 최종덕의 신유물론 일반강의 동영상입니다.

1. [들뢰즈에서 라투르까지;미분법과 리만기하학](https://youtu.be/J8OF-Pofc7U?si=F5PtiYQvHxJy1EFY) <https://youtu.be/J8OF-Pofc7U?si=F5PtiYQvHxJy1EFY>
2. [해러웨이 신유물론의 생물학적 기초](https://youtu.be/Ls00WVR4egs?si=a8ac0mz6Y_vxzq-v) [https://youtu.be/Ls00WVR4egs?si=a8ac0mz6Y\\_vxzq-v](https://youtu.be/Ls00WVR4egs?si=a8ac0mz6Y_vxzq-v)
3. [involution, 해러웨이와 들뢰즈 차이](https://youtu.be/gvH_pBoOUNA?si=PXOn0Ao5HaVwyD6Q) [https://youtu.be/gvH\\_pBoOUNA?si=PXOn0Ao5HaVwyD6Q](https://youtu.be/gvH_pBoOUNA?si=PXOn0Ao5HaVwyD6Q)
4. [해러웨이, 기존 영장류학 비판](https://youtu.be/VUqWI_Bubfc?si=zntBflcy1eC7Yc) [https://youtu.be/VUqWI\\_Bubfc?si=zntBflcy1eC7Yc](https://youtu.be/VUqWI_Bubfc?si=zntBflcy1eC7Yc)
5. [캐런 버라드, 양자역학으로 본 얽힘과 결풀림](https://youtu.be/C4Dli8ieqQA?si=9yCggnI8HH38ILP) <https://youtu.be/C4Dli8ieqQA?si=9yCggnI8HH38ILP>
6. [버라드의 무nothingness와 생성](https://youtu.be/8a3CvfDPNtU?si=jdfEnk3TA_d6qF-h) [https://youtu.be/8a3CvfDPNtU?si=jdfEnk3TA\\_d6qF-h](https://youtu.be/8a3CvfDPNtU?si=jdfEnk3TA_d6qF-h)
7. [신유물론으로 읽는 화이트헤드](https://youtu.be/TwpaCKuMSQ?si=xf6wuQgBxDBv-aGf) <https://youtu.be/TwpaCKuMSQ?si=xf6wuQgBxDBv-aGf>
8. [티모시 모튼, 하이퍼객체와 저주체](https://youtu.be/Wc20Z3taEto?si=3PSmKhbHwldmY4un) <https://youtu.be/Wc20Z3taEto?si=3PSmKhbHwldmY4un>
9. [토마스 네일의 운동철학, 그리고 신유물론 시리즈 전체 리뷰](https://youtu.be/b0hjtaGhYzY?si=Rzc3TJ97-1PqNzaC) <https://youtu.be/b0hjtaGhYzY?si=Rzc3TJ97-1PqNzaC>

## 하이트헤드의 강도 intensity, (과정) 목적론

"존재는 그 본성상 가치-강도를 지탱하는 것"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리고 전체를 위해 어떤 가치를 가진다"

"가치-경험"은 "현실성의 각 맥동의 본질적인 본성"

# 화이트헤드의 부분과 전체

<b>actual entity1 - concrecence</b>	부분(다자)의 합생
<b>oneness</b>	전체(유기체, 일자)
<b>superject</b>	일자들이 다른 부분으로 되어
<b>feel, prehension</b>	부분들(새로운 다자)의 합생
<b>another oneness</b>	전체(새로운 유기체, 일자)
<b>objectification</b>	또 다시 일자의 객체화
<b>actual occasion, actual entity2</b>	이 객체(부분)들의 합생
<b>prehension</b>	또 다른 전체
<b>oneness</b>	
<b>(organic processes)</b>	(일자, 노벨티로서 유기체)

## 들뢰즈의 "n-1"

위계적이고 중심적인 구조에서 **하나(1)를 빼는 것**, 즉 **중심이나 통일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리좀(Rhizome)적 사고**

**\*\***생성, 욕망, 배치, 리좀, 주체해체, 탈영토화의 이미지- 다양체의 특징인 개방성, 비결정성, 그리고 비중심적 연결

## 모턴의 "1+n"

하나(1)의 파동(현상)에 무한에 가까운 다수(n)의 다른 파동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반위계적, 집합적, emergent 한 과정성 (하이퍼객체, 161)

**\*\***비인간객체, 복잡원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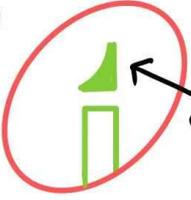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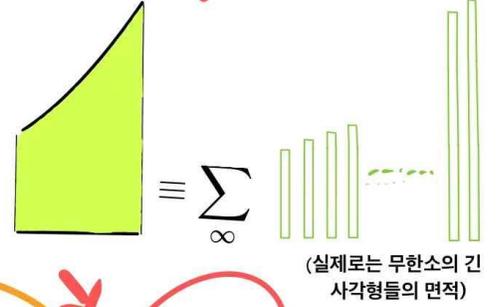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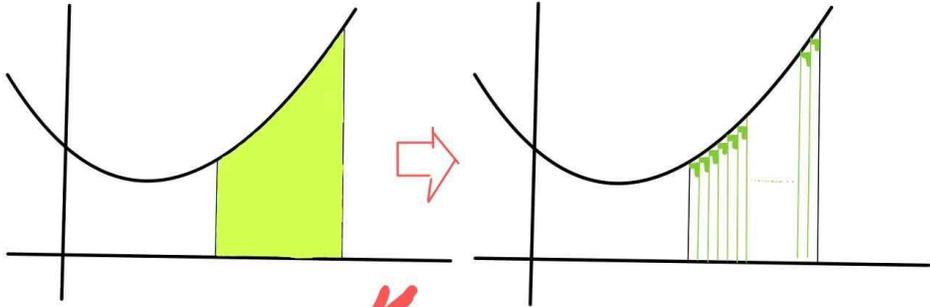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지정권, 유입선)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시스템)
-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모든 하이퍼객체)

- 하이퍼객체로서 지구 온난화(1)의 파편(n)은 특정 장소에서의 토네이도, 홍수, 이상 고온, 혹은 과학적 데이터 그래프 등이다. 우리는 하이퍼객체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파편적 객체(n) 위에 남긴 발자국(footprint)만을 경험할 수 있다.

근대화된 존재양식의 슬픔은 운명적(결정론적) 이어서 이런 슬픔을 분노하거나 전부 날려 버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분화되지 않은 존재자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 희망은 우리 삶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생명은 곡선의 공백 안에 있는데, 공백이 사라지면서 존재의 갱신과 연결망도 같이 없어졌다.

더블클릭의 미적분 근사법을 통해 원호 곡선 상의 공백은 무시되고 만다.



사라진 "공백" HIATUS

(라투르 존재양식 12장 참조)

<근대화, 미적분된 존재의 운명>

<라투르 존재양식 읽는 방법1>

2023  
2/20/24

<천개의 고원> 중에서 다중체를 설명하는 문장:

"A multiplicity is, in the most basic sense, a complex structure that does not reference a prior unity. **Multiplicities are not parts of a greater whole** that have been fragmented, and they cannot be considered manifold expressions of a single concept or transcendent unity."

## 들뢰즈

흙의 연합론associationism

기존 실체론 철학과 달리 관계가 개별항 밖에 있다.

흙에서 관계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 밖에 있다. 관계는 무한히 가능하다.

들뢰즈가 보기에 흙은 EST(있다)에서 ET(그리고)로 대체하는 사유다.

(디אל로그 110)



## 러셀

버틀란트 러셀에서 관계는 개별항 밖에 있지만 실재한다. - 흙의 연합론을 realism으로 재해석



## 화이트헤드

초기 러셀과 공조했지만 나중에 형이상학으로 전회한 화이트헤드에서 밖에 있는 관계가 사건 안으로 내재된다.

내재성, 생성(되기;Becoming), 비인간 주체, 관계, 경험 개념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들뢰즈는 자신의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The Fold: Leibniz and the Baroque)』에서 화이트헤드를 다룬

##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이되기' 개념 (천개의 고원 10장)

- 고정관념 버리기, 위계와 권위 탈피
- 자유로운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지하기
- 퇴행이 아니라 involution
- 생명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회복하기
- 규칙대로 노는 것이 어른이라면 아이들은 놀면서 그안에서 규칙을 만들어간다.



모튼의  
"놀이"  
로 연계

들뢰즈의 '기계' 개념은 "객체"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객체란 말은 주체에 의해 경험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비슷한 이유로 들뢰즈는 '사물'이라는 용어도 회피하려고 한다고 클라인헤이런브링크는 말한다.

Graham Harman

Object oriented Ontology

OOO 와 칸트

transcendental : 인식론 범주,   
 인식론 범주 unit of apperception → ① 거부

transcendent : 존재론 범주 거부 → ② 거부

Ding An sich → 거부   
 thing in itself 인식론적   
 thing, object → 각이 없기에서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실존지이다

G. 하먼과 Timothy Morton의 객체주의 거부

#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OOO; object-oriented ontology

1968년생

1. 원시적인 물질 덩어리-세계로 상정되어진 파생물이 아니다. 라투르도 이에 동의한다.
2. 객체는 자신의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라투르 동의)
3. 객체는 인간의식에 나타나는 외양으로 환원될 수 없다.
4. 객체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라투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먼은 말한다. 라투르에게 객체와 객체 사이의 어떤 연결항이 요청된다. 하먼은 이런 연결항을 국소적 기회원인론이라고 해석한다. 라투르 자신은 이를 "번역"이라고 한다.
5. 객체는 자신이 세계의 여타 객체와 맺고 있는 관계들로 정의(환원)될 수 없다.(422)
6. 객체를 경험하지만 감각자료 덩어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홀처럼)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406-22, 생태적 삶 48



## object-oriented ontology 객체지향존재론

- 상관주의correlationism에서 관계주의relationism로
- 객체의 '물러나 있음(Withdrawal)':
- 객체의 4중 구조(Fourfold Structure):실재와 감각, 객체와 성질 사이의 구조이며 실재적 객체(RO)는 다른 실재적 객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없으며, 모든 관계는 감각적 객체를 통해서만 간접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하먼은 '대리적 인과성(vicarious causation)\*\*'이라고 했다. 객체와 객체 사이의 영향력은 본질이 아니라 감각적 표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객체의 실재는 항상 물러나 있다
-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
- 반환원주의(Anti-reductionism): undermining환원도 안되고 overmining환원도 안된다.

# 하이데거의 인간의 도구존재론에서 탈피한 모튼의 "객체"

- 하이데거의 *Zuhandenheit*(손 안에 있음, 인간의 목적활동 안에서 도구적 존재) 와 *Vorhandenheit*(눈앞에 있음, 도구의 존재 자체를 의식, 물질적 대상으로, 도구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는 둘 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고 모튼은 판단한다.
- *Zuhandenheit*는 나의 인식능력에서 물러나 있다.withdrawl
- 객체는 인간의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객체와 객체 서로에게 물러나 있다.

(생태적 삶, 61-2쪽)

- 문학과 문화학 + 생태철학 + 과학

- 미국 라이스 대학 영문학과와의 리타 시 거피(Rita Shea Guffey Chair)

교수

- 문학 속 음식과 몸의 이야기, 생태학, 객체 지향적 존재론, 생물학,

양자물리학 등 초학제적

1994. [\*Shelley and the Revolution in Taste: The Body and the Natur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adical Food: The Culture and Politics of Eating and Drinking, 1790-1820\*](#) (Routledge)
2000. [\*The Poetics of Spice: Romantic Consumerism and the Exo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Mary Shelley's Frankenstein: A Routledge Study Guide and Sourcebook\*](#) (Routledge)
2002. [\*Radicalism in British Literary Culture, 1650-18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Cultures of Taste/Theories of Appetite: Eating Romanticism\*](#) (Palgrave Macmillan)
2006.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el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cology Without Nature: Rethinking Environmental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The Ecological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Realist Magic: Objects, Ontology, Causality\*](#) (Open Humanities Press)
2013. [\*Hyperobjects: Philosophy and Ecology after the End of the Worl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Nothing: Three Inquiries in Buddh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h Marcus Boon and Eric Cazdyn)
2016. [\*Dark Ecology: For a Logic of Future Coexist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Books)
2018. [\*Being Ecological\*](#) (Pelican Books)
2021. [\*Spacecraft\*](#) (Bloomsbury Academic)
2021. [\*Hyposubjects: On Becoming Human\*](#) (Open Humanities Press, with [Dominic Boyer](#))
2023. [\*The Stuff of Life\*](#): (Bloomsbury)
2024. [\*Hell: In Search of a Christian Ec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 국내 번역

- 어두운 생태학 2024 / 2016
- 저주체 2024 / 2021
- 하이퍼객체 2024 / 2013
- 실재론적 마술 2023 / 2013
- 생태적 삶 Being Ecological 2023 / 2018
- 무에 대한 탐구 2024 / 2015
- 인류 2021 / 2017

Timothy Morton 2010, ✓  
「Queer Ecology」  
In: 『PMLA(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25(2)

[Nothing: Three Inquiries in Buddhism](#)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h Marcus Boon and Eric  
Cazdyn)

# “유기체론은 생태적이지 않다.” (모튼의 퀴어 생태학)

- 많은 환경주의는 (시스템론은 더 그렇지만) 유기체적이라고 한다. 그런 전체론적 유기체주의는 권위주의적 남성주의에 너무 자주 순응해왔다.
- 전체론적 유기체 형태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론적 유기체론organicism은 생태적이지 않다. (Morton 2010)
- 전체론적 유기체주의의 세계는 마음에 부합하고 마음은 세계에 부합한다는 사유는 목적론의 한 형태다.
- 상호연결된 생명의 그물망은 세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물망 이론은 유기체에서 벗어나 있지만 동일 수준에 놓인 대안이 아니다.
- 일신교적 종교나 전제주의 권력 역시 그 전체는 항상 부분들의 합보다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전체를 외파적 전체explosive holism 라고 한다. (어두운 생태학, 120)

- 강도에 해당하는 내파성
- Implosive : “외파적”(explosive)에 대비되는 개념

#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의 사례

- 유기체이론의 유기체, 체계론의 체계, 자본주의 국가, 독재국가, 영주권력, 가이아, 종교,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 "산업자본주의는 맑스에 의해 산업기계들의 창발적 속성으로 이론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가 신과 같이 항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턴2017, 291)
- 일신교의 신은 외파적으로 부분들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신은 부분보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석기 이후 왕은 우리보다 크고 중요했다. 그러나 모튼에서 왕이나 신은 부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모튼2023, 120) 이런 점에서 신을 수많은 현실적 존재자(actual entities) 중의 하나로 간주했던 화이트헤드 존재론과 의미를 같이 한다.

## Timothy Morton 모튼의 부분과 전체

1. 부분의 자기 존재성 subscendence
2. 부분은 전체를 넘어서 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작다.
3. 부분 하나가 자기의 개별적 특성을 갖는다. 객체는 더 작은 객체로 환원되지 않으며 더 큰 객체로 사라질 수도 없다. (하이퍼객체, 236)
4.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존재라서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5. 부분들의 "비전체"적인(비-총체, 집산적인, nonwhole) 얽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 -즉 비전체는 전체론이나 환원주의가 아니다
6. 부분은 단순한 전체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의 논리를 초과하고 잉여를 가지는 자기-존재적인 실재

## 모튼의 부분과 전체

1. 전체는 부분을 저월하면서 부분은 전체를 구성하는 기계적 요소가 아니라 전체와 부분은 똑같이 실재적이다. 전체가 그 부분의 합보다 더 작다는 것이다. 체계론이나 전체주의 혹은 유기체론과 다르다.
2. 그렇다고 해서 부분들이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조장하는 반전체론적 환원주의(혹은 개체주의적 공리주의)이다. 우리에게서 약한 (내파적) 전체론이 필요하다.(모튼2017, 166)
3. 인류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들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작다
4.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개별 시간적인 부분들의 사건들도 그것의 연속이 모여 전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모든의 공생적 실재 symbiotic real, 연대, ecocommunism

- 공통성 없는 공동체
- 외파적 전체가 아니라 내파적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작은 전체이다.
- 존재자들의 "연대" solidarity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공생적 실재, 그 자체의 현상학"이다. (<인류>(한국어판 17쪽)
- 현실 reality과 실재 the real 사이에 균열된 단절 severing 대신 연대 solidarity로
- 생태공산주의(Ecocommunism)로의 확장: 연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행성적 공산주의(planetary communism), 즉 '생태공산주의'의 정치적 가능성(<인류>2장)

## 모튼, 비인간중심의 인류humankind

- 인류란 백인 남성이라는 관습적 본질에서 벗어나 공생적 실재의 존재자로서 너와 나 혹은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인간 존재자이다. 이를 생태적 대명사라고 모튼은 말한다. 모튼이 말하는 humankind 는 human itself 와 정반대 개념이다.(Morton 2017, 3)
- 비인간 존재에 대하여 친절함(kindness)'과 '연대(solidarity)'를 형성하는 새로운 인류가 humankind이다. 새로운 인류는 종(species) 개념을 넘어서는 더 넓은 현실 이해를 포함한다.
-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멸종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인류의 이익과 대립한다.(모튼2017, 243)

# 지휘자 모델 부정

전체, 통제자, 관리자로서 뇌는 없다.

- 강속구를 치는 야구선수의 타격능력
- 컵쌓기 숙련된 소년과 신경과학자 David Eagleman의 컵쌓기 시합 - 두 사람 모두 뇌스캐너에 연결한 채 시합 - 이글만의 뇌가 상당히 작동하는데도 뇌활동이 거의 작동하지 않은 소년에게 크게 졌다. 속도전 행동은 머리가 아닌 몸이 한다. 뇌가 몸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자논리 혹은 지휘자 모델이 적용될 수 없다. (모튼 2023, 146-7)
- 몸은 나의 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생명체 DNA발현(표현형 발현)은 생명개체로 제한되지 않고 생존과 번식을 위한 환경에까지 연결된다.(모튼이 든 사례로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표현형은 거미 다리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까지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도 (인간만이 아닌) 세균의 표현형이다. (모튼 2023, 248)

# 외파적 전체론

- 자본주의는 외파적 전체론에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Morton 2017, 22)
- 사회진화론
- 파시즘: 다름과 이질성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의 깃발 아래 묶어 꿰매어 놓으려 한다
- 단절이란 억지로 꿰매어 붙이기 "The Severing consists precisely in the stitching-together itself"이며, 전체론은 이런 붙이기의 연속이다.
- 죄와 유혹 그리고 악마로서 악의 근원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타락의 서사fall narratives로 기반된 종교는 전형적인 꿰매어 붙이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Morton 2017, 23) 부분들의 합보다 큰 전체의 근거가 바로 서구 종교의 관리모델이라고 속삭인다. (Morton 2017, 23)
- 현존의 형이상학이란: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으로, 존재의 본질(essence)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일 전체라고 가정하는 사고방식 (Morton 2017, 26)



## 대문자 생명, 선전문구로 왜곡된 생명에서 진짜 생명으로

1. 대문자 생명은 실제 생명체에게 적대적이다. 예를 들어 '생명의 존엄성', '자연 보호', '생태계 보전'과 같이 거대하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때의 생명은 '대문자 생명'의 개념이며,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생명체(actual beings)'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모턴은 말한다.
2. '대문자 생명'은 실체 존재론(substance ontology)에 있다.
3. 실체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이 외양 아래와 너머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현상(외양) 뒤에 숨겨진, 더 근원적이고 '진정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류> 1장)

## 이념화(관념화; 계량화)된 자연으로서 환경

자연의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주의가 치안을 유지하는 그 경계와 유사한 내부-외부 구조에 기반한다. (Ecology 19, 25, 40, 52-54, 63-64, 67, 78; "Ecologocentrism")

이성애중심의 자연주의 - 영장류학자 드발은 동성애중심의 자연이 실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틀러와 비교)

생명은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거나 중앙집중형 권위적인 게 아니라 파국적이고 괴물 같으며 비전체론적이면서 탈구되어있다.

# 어두운 생태학

- '자연' 개념의 해체: 자연 없는 생태학(낭만적 자연 개념이나 현수막 환경 보호주의 거부)
- 인간-비인간의 연결성 강조
- 불편한 하이퍼객체(Hyperobjects)를 인정하고 직시하기
- 절망과 우울을 회피하지 않고, 우울을 통한 생태적 알아차림
- '범죄에 연루된 형사' 비유
- 동등한 존재로서의 객체들의 공존

# 퀴어 생태학으로의 전환하는 과도기적 양상 transitional mode이 곧 어두운 생태학이다

자연에 대한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상호연결된 생명체의 좀비 같은 특징을 인정하기

‘심층생태학’이 깊이와 진정성으로 은유된다면,  
‘어두운 생태학’은 깊지만 아이러니하고 욕망을 인정한다

들뢰즈는 유기적organique 이라는 단어를 비판한다. 유기체는 생명을 가두고 있다.  
(감각의 논리)

# 생태학적 각성

(하이퍼객체, 262쪽)

- 생명, 환경, 자연의 추상적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고 '하이퍼객체'를 직시할 때 불편하고 생소하며 거부하기까지 한다. 이런 uncanny valley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각성'이다.
- '환경', '세계', '생태 시스템', 심지어 '지구'까지도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전체' 개념은 환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태학적 각성이다.
- 이런 개념은 인지적 편의를 위한 추상화이며 아픈 데 말고 환성의 건강한 데 (인종)만 찾는 차별주의/인종주의적 접근이다.
- 실제로는 수많은 개별 '객체'들의 예측 불가능한 '엄함'만이 존재한다.
- 모든 존재자(인간, 비인간, 생명, 비생명)들은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 우리는 지구를 특별히 신성시하거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재단할 수 없다.

# 매혹의 무지개에서 눈을 뜨고 처절한 납골당을 직시하기

“세계가 없다면 자연도 없다. 세계가 없다면 생명도 없다. 자연과 생명이라는 특권 서클 charmed circle 바깥에 납골당 charnel ground이 존재한다. 그곳은 삶과 죽음, 삶-속-죽음, 죽음-속-삶의 장소이자 좀비, [바이러스보다 작은] 바이로이드 viroids, 정크 DNA, 유령, 규산염, 청산가리, 방사선, 사악한 힘, 오염 물질이 있는 완전히 죽지 않은 장소다. 내가 생태학적 각성에 저항하는 것은 납골당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 (하이퍼객체, 2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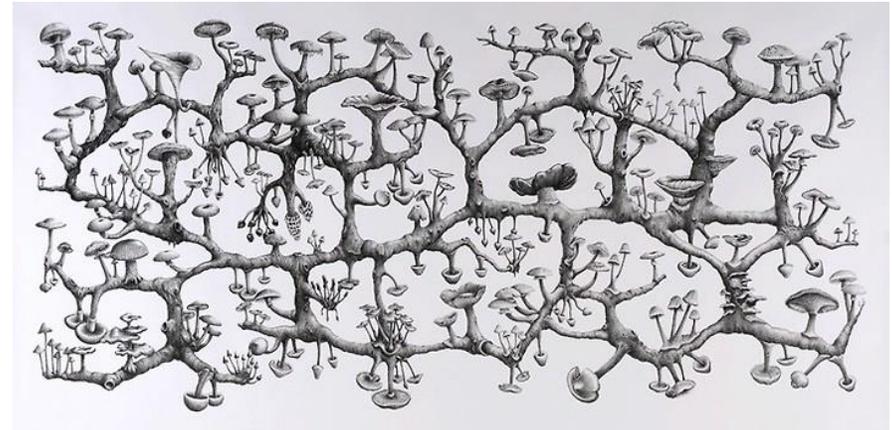
## 지속가능성의 로지스틱스 대신에 모튼은,,

- '존재론적 이질성(Ontological Asymmetry)'의 인정: 반중심, 반위계, 서로 영향
- '물러서 있음(Withdrawal)'의 직시: 객체가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 '연결망(Mesh)' 속에서의 공존: 인간-자연의 복잡한 생태적 '연결망' 속에서 겸손하고 윤리적으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색
- '어두운 생태학'의 수용: 절망, 우울에 마주하여 불편한 진실과 예측 불가능성을 직시하는 '어두운' 태도

# 모튼의 그물망

그물망은 환경주의("생명의 그물")나 포스트모던 이론이 애정하는 많은 유기적 은유처럼 부드럽고 물렁하지 않다.

추정컨대 비계층적이기 때문에 "수목적인" 형태보다 선호되는 질 들뢰즈와 펠릭스가 타리의 리좀과 같은 아이디어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Morton, Ecology 52-53, 107-09)



# 모턴이 지적한 거대 가속 Great Acceleration

1784년 제임스 왓트의 증기기관 이후 지구 표층에 탄소가 축적되었듯이 인류세 지구는 1945년 이후 방사능 물질로 퇴적된 지질층을 만들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거대가속이라고 했다.

(모튼 2022, 17)